

Research Center

2017년 12월 27일

투자전략 Daily

• 경제분석

투자 사이클 컴백 - 기업가 정신과 볼세비키 혁명

• 중화권 증시 동향

기계와 은행주 강세에 상해종합 3,300선 만회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유니슨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한솔시큐어 외 5개 종목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켈린더

전략 총괄 | 노근환
투자 전략 | 박소연
시황 분석 | 김대준
계량 분석 | 안혁
스몰캡 전략 | 정훈석
해외 주식 | 백찬규
중국 시장 | 최설화
신흥국/원자재 | 서태중
글로벌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중
경제 분석 | 박정우
채권 분석 | 오창섭
크레딧 | 김기명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19(화)	12/20(수)	12/21(목)	12/22(금)	12/26(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478.53	2,472.37	2,429.83	2,440.54	2,427.34	
	등락폭	-3.35	-6.16	-42.54	10.71	-13.20	
	등락종목	상승(상한)	172(0)	341(1)	180(0)	531(0)	459(0)
		하락(하한)	647(0)	468(0)	627(0)	265(0)	364(0)
	ADR	79.80	79.86	73.33	75.10	77.00	
	이격도	10 일	100.24	100.00	98.41	98.94	98.58
		20 일	99.45	99.34	97.84	98.48	98.10
	투자심리	40	40	40	40	30	
	거래량	(백만 주)	308	236	247	230	223
	거래대금	(십억 원)	5,240	4,749	5,352	4,802	5,600
코스닥	코스닥지수	766.18	755.27	740.32	761.2	762.21	
	등락폭	-4.32	-10.91	-14.95	20.88	1.01	
	등락종목	상승(상한)	261(2)	325(1)	201(3)	798(2)	539(3)
		하락(하한)	929(0)	818(0)	990(1)	366(0)	627(0)
	ADR	82.23	80.28	71.65	72.65	73.32	
	이격도	10 일	100.27	99.01	97.22	99.73	99.89
		20 일	99.02	97.77	96.19	99.10	99.43
	투자심리	30	30	30	40	40	
	거래량	(백만 주)	1692	1405	1209	1083	792
	거래대금	(십억 원)	8,633	6,667	6,013	6,110	6,524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638.8	936.7	1,947.2	954.1	234.9	277.4	108.2	6.2	366.4	91.7
	매도	3,533.7	921.0	1,078.1	278.4	199.6	127.9	117.7	20.7	333.8	81.6
	순매수	-895.0	15.8	869.1	675.6	35.3	149.6	-9.6	-14.5	32.6	10.1
	12월 누계	-3,918.1	-1,820.8	5,170.4	4,173.8	207.2	455.5	-15.3	-125.7	474.9	568.4
	17년 누계	-9,582.3	6,256.7	-2,084.9	12,486.5	-1,929.9	-3,172.3	-338.0	-913.6	-8,217.9	5,410.5
코스닥	매수	5,299.3	448.2	776.9	401.9	44.1	96.2	165.4	3.8	65.6	48.8
	매도	5,905.1	385.7	223.6	71.4	28.2	31.0	55.6	1.6	35.8	58.8
	순매수	-605.8	62.5	553.4	330.5	15.9	65.2	109.8	2.3	29.8	-10.0
	12월 누계	-1,562.0	355.4	1,333.2	1,181.9	19.4	51.0	154.9	-16.9	-57.0	-126.6
	17년 누계	573.2	3,007.0	-1,660.3	1,267.8	-317.4	-832.2	-502.4	-95.4	-1,180.7	-1,919.9

투자 사이클 컴백- 기업가 정신과 볼세비키혁명

2017년 Target KOSPI	2,900pt
12MF PER	9.29배
12MF PBR	1.05배
Yield Gap	8.6%P

- ▶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세계경제는 성공적인 회복을 마치고 새로운 성장을 준비
- ▶ 미국 세계개혁은 선진시장이 주도하는 투자 사이클 촉매제 역할
- ▶ 투자 사이클 회복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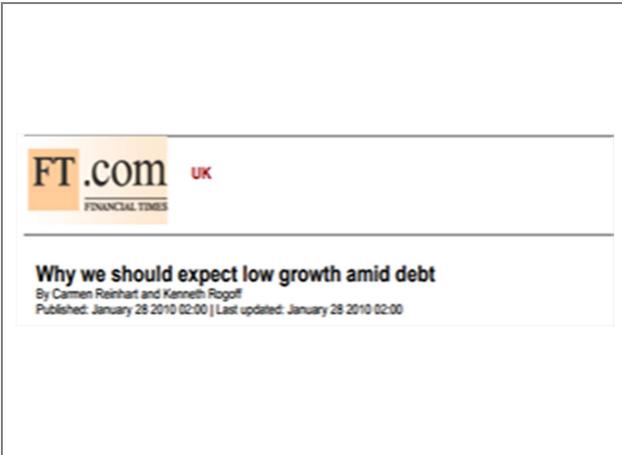
■ 돌아온 경기 사이클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고 했던가? 언제나 그렇듯이 2008년 금융위기는 대다수에게 고통이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스타의 반열에 올라 선 학자들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중의 한 명이 전 IMF 수석 경제학자이자 현재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다. 그는 동료 교수인 라인하르트와 함께 2009년에 출간한 “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 라는 책에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이 과거와 달리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그림 1].

투자의 세계에서는 워렌 버핏과 동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존 템플턴 경의 격언을 그대로 책제목으로 쓴 “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 에서 로고프 교수는 1800년 이후 경기 사이클에 비춰보면 금융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부실화되면서 발생하는 경기침체는 대략 8~10년 정도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시 금융위기 직후 지적했다. 물론 로고프 교수의 이러한 전망은 원래 경제학자들이 하는 우울한 과학(Dismal Science)의 일부처럼 취급되기도 했고, 그의 분석과 전망이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정부재정 긴축과 금융규제의 근거로 사용되면서 경기회복을 오히려 늦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학자들의 몫이고 우리의 관심은 그가 제시한 10년이라는 기간이 올해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현될지 여부이다. 실제 그는 본인의 연구에 매우 충실하게도 2010년의 우울한 전망에서 벗어나 작년 트럼프 당선 직후 매우 정확한 예측을 보여준 바 있다. 다보스 포럼에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은 상당히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당시 세간의 우려와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그림 2].

[그림 1] 2010년 당시 로고프와 라인하르트 교수 컬럼



자료: FT, 한국투자증권

[그림 2] 2016년 트럼프 당선 직후 로고프 교수 인터뷰



자료: CNBC, 한국투자증권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기상청의 전망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되기 일쑤이지만 이 정도의 트랙레코드를 보여준 로고프 교수의 전망이라면 한번 귀담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그는 호주에서 열린 회의에 연사로 참석해서 세계 경제가 따라잡기 국면 (catch up growth phase)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호주 등이 혜택을 입을 것이고 AI의 빠른 발전은 그 동안 세계경제 발목을 잡았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낳았다.

대가의 명성에 슬쩍 밥순가락 없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만 이러한 로고프 교수의 전망은 지난 번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사이클은 새로운 경기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필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12/7 '10년 사이클을 믿지 마세요' 참조). 새로운 경기 사이클은 레버리지 사이클의 회복과 투자 사이클의 귀환으로 요약된다. 단순 재고 사이클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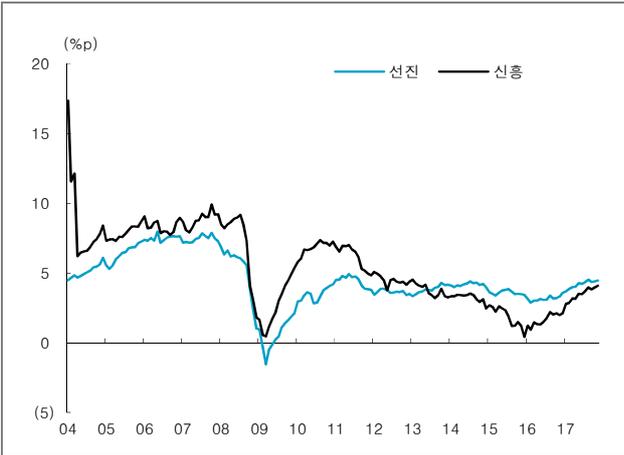
■ 선진시장이 주도하는 투자 사이클

흔히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면 2000년대의 강렬했던 기억 때문에 신흥국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 투자 사이클은 선진시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투자사이클을 설명하는 ROE(자기자본이익)와 COE(자기자본비용) 스프레드의 추이가 선진시장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자본을 조달해서 조달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자기자본이익률이 자기자본비용보다 빠르게 상승할 때 투자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래 [그림 3]에서 보듯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신흥국의 'ROE-COE' 스프레드가 선진국보다 빠르게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의 'ROE-COE' 스프레드가 신흥국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기업들이 보다 자본지출에 적극적일 수 있는 환경에서 단행된 미국의 세계개편은 미국 기업의 투자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 세계개혁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기업의 자본지출에 대한 일시 비용처리를 가능하게 해주어 기업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 방향이 기업투자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CEO들의 자본지출에 대한 전망도 매우 밝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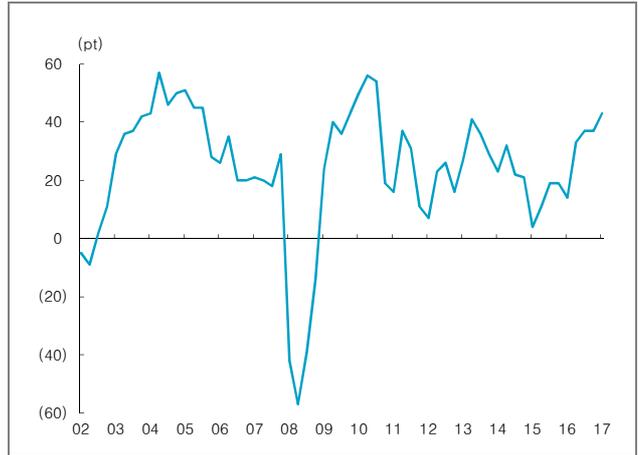
이처럼 선진시장 투자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정책방향과 더불어 실제 자본지출을 결정하는 CEO들의 전망과 이러한 자본지출을 선행하는 지표들이 모두 향후 글로벌 투자 사이클이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오랜만에 보는 삼위 일체의 합이다.

[그림 3] 선진국과 신흥국 ROE와 COE 스프레드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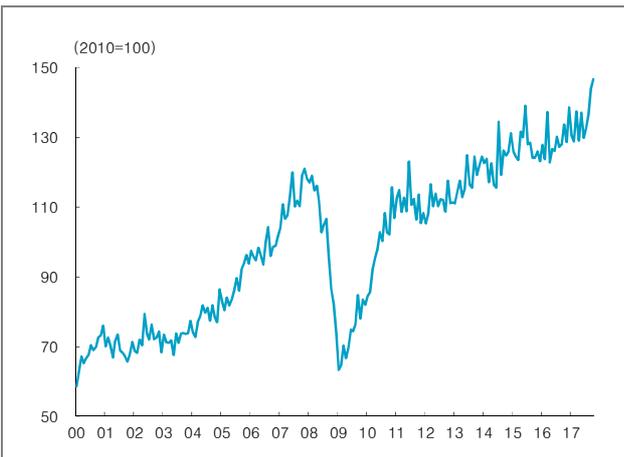
[그림 4] 미국 CEO 자본지출 전망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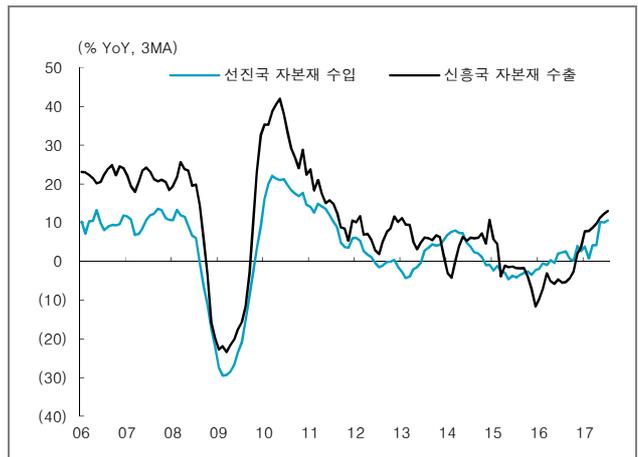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글로벌 투자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독일 해외자본재 주문은 올해 들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5]. 보다 시야를 넓혀서 선진국의 자본재 수입 동향과 선진국에 수출하는 신흥국 자본재 수출 동향을 보면 글로벌 투자 사이클의 상승추세는 보다 분명하게 나온다[그림 6].

[그림 5] 독일 해외 자본재 주문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선진국 자본재 수입과 신흥국 자본재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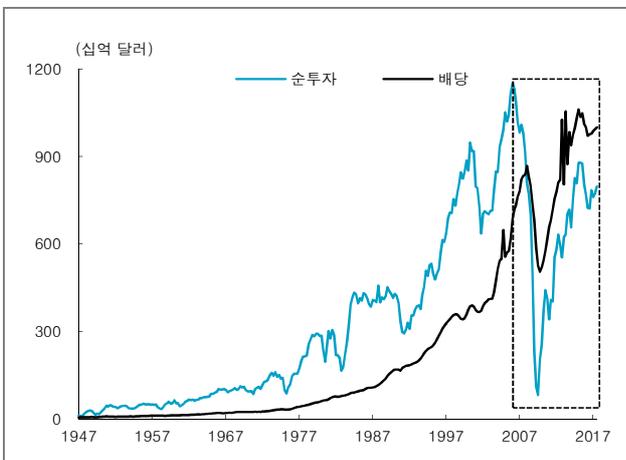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기업가 정신과 불세비키 혁명

미국 기업들은 금융위기 이후 투자보다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매진하면서 매우 보수적으로 자본을 운영해왔다. 이러한 보수성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기업들이 실물투자보다는 배당지급액이 월등히 많았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그림 7]. 물론 주주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것도 잘 보면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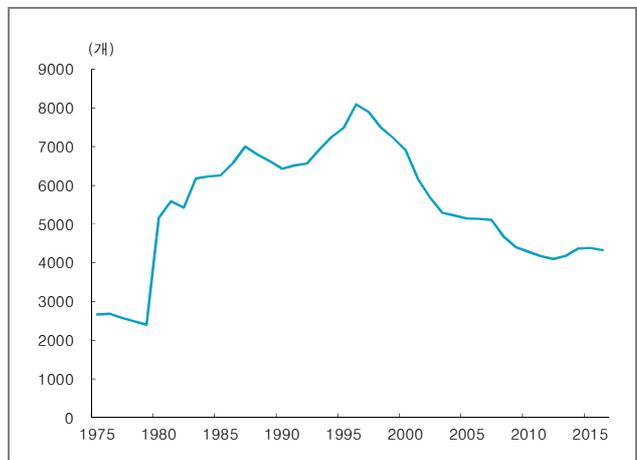
96년 당시 8,000개가 넘었던 상장기업 수는 2016년 들어 그 절반 수준인 4,331개로 줄어 들었다[그림 8]. 기업 공개를 꺼리고 상장을 폐지하며 기업간 M&A가 활발해지면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주주이익 역시 소수에 독점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배당지급이 투자금액보다 높은 이례적인 상황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서서히 사라지는 공개시장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집중화는 독점을 낳고 있고 이러한 독점은 곳곳에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점기업에 의한 고용시장 지배력 확대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가 단숨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계개편안에서 물꼬를 튼 투자 확대 정책은 2018년에 금융규제완화로 이어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로 마무리될 것이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M&A가 아닌 IPO를 위주로 진행되도록 하자는 것이 현재 미국 재무부가 제시하는 안이다.

트럼프의 개혁이 미국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소망 없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낼지 우리는 현재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경제발전의 이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새마을 운동이 그랬고 더 나아가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레닌이 이끈 불세비키 혁명이 그러했다.

1917년 볼셰비키는 10월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로의 이행을 천명한다. 아직 농노제의 흔적이 곳곳에 존재하는 러시아에서 발생한 사회주의 혁명을 마르크스는 인정할 수 없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유물론의 공식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역사 이행의 법칙을 깬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레닌은 그 유명한 ‘약한 고리론’으로 반격을 가한다. 공산주의 혁명은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동시다발적 혁명이어야 하는데 러시아는 자본주의가 가장 덜 발전한 약한 고리였기 때문에 혁명이 발생했다는 논리다. 언제 어느 때나 정치인은 말을 잘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의 이후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다. 2017년은 기존의 질서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본주의는 위협에 대한 대가를 합법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야생에서 바다에서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위협을 마주할 필요가 없다. 시장이 보상해주는 위협에 집중하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르침이고 기업가 정신의 원류다. 볼셰비키는 농노제 파괴는 성공했지만 지독한 독재를 통해 위협에 대한 보상을 없애버렸다. 따라서 미국의 개혁방향이 위협에 대한 보상을 장려하는지 아니면 위협을 피하고 독점을 장려하는 쪽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년전 볼셰비키 혁명이 대안이 아니라면 기업가 정신이 갖는 본연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며 2018년을 맞이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기계와 은행주 강세에 상해종합 3,300선 만회

- ▶ 상해종합지수는 최근 조정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 기계와 은행주 강세 뚜렷
- ▶ 홍콩H지수는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 27일부터 거래 재개 예정

상해종합지수 0.8% 상승,
저가매수세 유입에 3,300선
만회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0.8% 상승한 3,306p로 마감하며 3,300선을 다시 상회했다. 거래대금은 1,747억위안으로 직전 거래일에 비해 약20% 늘었다. 소폭 하락으로 출발한 시장은 오후에 들어 상승폭을 확대해나갔다. 연말을 앞두고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했던 가운데 최근 며칠간의 조정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 특히 상업은행들의 대출 중단 루머가 부인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펀더멘털에 비해 주가 상승폭이 낮았던 기계업종이 금일 코마츠 가격 인상 등 호재에 힘입어 급등했고, 은행주들도 내년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따른 기대감에 급등했다. 장기금리 상승 속에 보험주들의 강세도 뚜렷했고 교통운송, 전자재, 자동차 등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했다. 반면 최근 상승했던 가전, 음식료, 레저 등 업종은 하락했다. 홍콩증시 휴장 속에 후구통/선구통 거래도 중단됐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휴장

홍콩H지수는 크리스마스 연휴로 25~26일 휴장, 27일부터 거래 재개 예정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분	12/26 (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306.13	0.78	0.29	-1.42	6.52
심천종합	1,892.02	0.43	-0.71	-1.60	-3.92
차스닥	1,758.82	0.17	-2.21	-1.34	-10.36
홍콩H	11,653.08	휴장	2.53	-2.14	24.04
Shibor 7일물 금리(% , %p)	2.89	0.38	0.73	0.66	13.72
Shibor 1개월 금리(% , %p)	4.93	0.23	3.27	22.04	49.06
중국국채 3년물(% , %p)	3.88	0.04	-0.27	-1.85	28.11
위안/달러 고시환율	6.5416	-0.41	-0.58	-0.60	-5.70
역내 위안/달러	6.5465	-0.10	0.89	0.81	6.09
역외 위안/달러	6.5453	0.14	0.93	0.80	6.58

주: 26일 오후 5시 58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개인의 매도세가 지속된 가운데 전강후약 장세를 연출하며 혼조 마감

- 뉴욕증시가 성탄절 연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로 장중 내내 오름세를 보였으나 강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등 대형 IT주들의 하락과 개인의 매도세로 장 막판 하락반전 후 2,430P선 아래로 밀려남. 코스닥도 장중 1% 이상 급등하며 장중 775P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장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강보합세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고마진 품목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보라티알이 급등했으며,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 추진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가를 결정한 넥스지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내년 해외 모멘텀이 본격화되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콜마비엔에이치가 급등했으며, 신작 '검은사막 모바일', '로열블러드' 출시 기대감에 펠어비스, 게임빌이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일부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임. 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며 롯데지주를 비롯해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연이은 기술수출 소식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임. 반면,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하며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던 시스웍은 차익실현 매물로 신규 상장 첫날 급락세를 보였으며, 1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에 콤팩트 시스템이 급락하며 신저가를 경신

종목/테마	내용
시스웍(269620) ▶3,390 (-11.02%)	<p>신규 상장 첫날 급락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린룸제어시스템, BLDC 모터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크게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하며 장중 20% 이상 급등했으나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반전 후 급락세 - 국내 클린룸 제어시스템 점유율 1위 업체로 삼성전자·LG전자·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중국 BOE·CSOT 등 국내외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음
롯데그룹주	<p>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며 강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무죄를,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경영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강세 - 롯데지주(004990, +20.52%), 롯데지주(004990, +5.82%), 롯데쇼핑(023530, +3.66%), 롯데제과(280360, +2.41%), 롯데칠성(005300, +0.60%) 등 강세
제약/바이오주	<p>기술 수출 기대감 등으로 강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울바이오파마에 이어 제넥신이 대규모 기술수출에 성공함에 따라 내년 국내 업체들의 연구성과 기대감에 고조되며 강세 - 국제약품(002720, +10.50%), 코오롱생명과학(102940, +5.26%), 레고캠바이오(141080, +5.49%), 대화제약(067080, +5.11%), 진양제약(007370, +3.95%), 유한양행(000100, +2.94%)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네오팜(092730) ▶44,750 (+6.04%)	- 새 브랜드와 유통채널 확대, 중국 진출 등에 힘입어 내년 고성장 전망에 신고가 경신
게임빌(063080) ▶87,200 (+4.81%)	- 내년 1월 12일 신작 모바일게임 '로열블러드'를 국내 출시를 앞두고 흥행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유니슨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유니슨 (018000)	3,855 (-11.3)	4,345 (1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구조적 수혜 전망 - 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중국법인이 공정 효율화와 중남미 수주 확대에 따른 가동률 회복으로 올해 턴어라운드 성공했고, 내년에도 이익 개선세는 이어질 전망 - 순이익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PER은 2018년 19.1배, 2019년 12.3배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
다나와 (119860)	13,000 (+20.4)	10,800 (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의 보급과 IT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쇼핑 증가에 따라 가격비교 수요의 저변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 PC중심에서 가전/가구, 생활용품, 패션잡화 등으로의 플랫폼 확장에 따른 레버지리 효과 기대 - 시가총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순현금 보유로 추가 하방경직성 확보
하이비전시스템 (126700)	12,300 (-5.0)	12,950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듀얼카메라와 3D카메라 시장의 확대와 고사양화에 따른 검사장비 수요 증가 전망 - 하반기부터 신규 거래처와 장비 매출이 추가되며 삼성과 애플이 전략 스마트폰에 듀얼카메라를 탑재함에 따른 수혜 전망 - 18년 예상 PER 8.4배로 Peer 업종의 평균 PER 16배 대비 저평가
삼성엔지니어링 (028050)	11,650 (-3.7)	12,100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까지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어 글로벌 업체 중 Best performer로 자리매김할 전망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PTT, 페트로나스, SABIC 등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발주처의 투자 재개 전망 - 급속한 턴어라운드에 따라 2018년 예상 PER은 16.6배까지 낮아질 전망
한솔케미칼 (014680)	70,900 (-1.3)	71,8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3분기 매출액은 1분기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 - 국내 공장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며 매출액 증가 전망 - 금년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DPT(Double Patterning Tech) 소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테이팩스의 전자재료 사업도 신제품 공급으로 성장폭이 확대될 전망
포스코강판 (058430)	28,600 (-3.4)	29,6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P(World Premium) 제품 확대를 통한 제품믹스 개선 전망 - 3분기 중국 컬러강판 가격이 크게 상승해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 -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고 높은 배당 성향으로 투자 매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한솔시큐어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한솔시큐어 (070300)	5,810 (-1.2)	5,880 (12/05)	15	(1)	6	826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확장은 eSIM(embedded SIM)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 -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G+D(독일 스마트카드업체인 G&D의 자회사)의 지분 투자에 따라 시너지 효과 기대 - 2018년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하는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보안 인식 강화에 따른 수혜 전망 				
크린앤사이언스 (045520)	11,950 (-4.4)	12,500 (11/13)	75	8	6	1,030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공기청정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 전망 -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의 중국 진출에 따른 수혜 전망 - 10월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 유입 대응을 위한 MB(부직포) 증설로 레버리지 효과 기대 				
송원산업 (004430)	25,150 (+26.7)	19,850 (10/18)	739	70	44	1,847	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폴리머 수요 증가와 국내 유휴유 첨가제 Capa 증설로 비수기인 4분기 호실적 달성 전망 -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사이 신규 크래커 가동에 폴리머 안정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수년간 이어질 미국 석유화학 증설 랠리의 초입 단계로 향후 구조적 성장 지속 전망 				
이엠텍 (091120)	16,850 (+19.5)	14,100 (7/20)	256	21	15	1,060	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KG ETS (151860)	4,205 (-0.4)	4,220 (7/5)	125	20	15	428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팀 판가와 동 가격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 				
SK (034730)	279,500 (-0.2)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 -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19(화)	12/20(수)	12/21(목)	12/22(금)	12/26(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478.53	2,472.37	2,429.83	2,440.54	2,427.34	
	등락폭	-3.35	-6.16	-42.54	10.71	-13.2	
	등락종목	상승(상한)	172(0)	341(1)	180(0)	531(0)	459(0)
		하락(하한)	647(0)	468(0)	627(0)	265(0)	364(0)
	ADR	79.80	79.86	73.33	75.10	77.00	
	이격도	10 일	100.24	100.00	98.41	98.94	98.58
		20 일	99.45	99.34	97.84	98.48	98.10
	투자심리	40	40	40	40	30	
	거래량	(백만 주)	308	236	247	230	223
	거래대금	(십억 원)	5,240	4,749	5,352	4,802	5,600
코스닥	코스닥지수	766.18	755.27	740.32	761.2	762.21	
	등락폭	-4.32	-10.91	-14.95	20.88	1.01	
	등락종목	상승(상한)	261(2)	325(1)	201(3)	798(2)	539(3)
		하락(하한)	929(0)	818(0)	990(1)	366(0)	627(0)
	ADR	82.23	80.28	71.65	72.65	73.32	
	이격도	10 일	100.27	99.01	97.22	99.73	99.89
		20 일	99.02	97.77	96.19	99.10	99.43
	투자심리	30	30	30	40	40	
	거래량	(백만주)	1692	1405	1209	1083	792
	거래대금	(십억원)	8,633	6,667	6,013	6,110	6,524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638.8	936.7	1,947.2	954.1	234.9	277.4	108.2	6.2	366.4	91.7
	매도	3,533.7	921.0	1,078.1	278.4	199.6	127.9	117.7	20.7	333.8	81.6
	순매수	-895.0	15.8	869.1	675.6	35.3	149.6	-9.6	-14.5	32.6	10.1
	12월 누계	-3,918.1	-1,820.8	5,170.4	4,173.8	207.2	455.5	-15.3	-125.7	474.9	568.4
	17년 누계	-9,582.3	6,256.7	-2,084.9	12,486.5	-1,929.9	-3,172.3	-338.0	-913.6	-8,217.9	5,410.5
코스닥	매수	5,299.3	448.2	776.9	401.9	44.1	96.2	165.4	3.8	65.6	48.8
	매도	5,905.1	385.7	223.6	71.4	28.2	31.0	55.6	1.6	35.8	58.8
	순매수	-605.8	62.5	553.4	330.5	15.9	65.2	109.8	2.3	29.8	-10.0
	12월 누계	-1,562.0	355.4	1,333.2	1,181.9	19.4	51.0	154.9	-16.9	-57.0	-126.6
	17년 누계	573.2	3,007.0	-1,660.3	1,267.8	-317.4	-832.2	-502.4	-95.4	-1,180.7	-1,919.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2,419	은행	-5,105	미분류	22,869	전기전자	-28,772
기타금융업	18,343	종이목재	-494	서비스업	18,582	화학	-11,662
운수장비	13,457	의료정밀	82	의약품	11,636	기타금융업	-7,512
삼성전자	46,091	KODEX 200	-11,155	TIGER 200	14,076	삼성전자	-25,909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5,570	우리은행	-4,667	넷마블게임즈	12,497	S-Oil	-15,989
현대차	4,645	팬오션	-2,468	LG전자	7,302	SK하이닉스	-11,407
NAVER	4,510	KODEX 레버리지	-2,116	삼성전기	6,247	LG화학	-7,154
신한지주	4,425	엔씨소프트	-1,674	NH투자증권	5,321	삼성SDI	-6,50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	580	미분류	-30,575	전기전자	25,481	은행	-4,869
은행	474	전기전자	-10,506	미분류	13,756	유통업	-3,601
의약품	188	기타금융업	-2,132	의약품	7,893	전기가스	-1,835
KODEX 200	2,613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2,761	삼성전자	19,877	KODEX 200	-5,137
KODEX 레버리지	1,799	KODEX 은행	-7,853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1,454	엔씨소프트	-4,266
TRUE 코스피 양매도 ETN	779	SK하이닉스	-7,181	NAVER	4,792	기업은행	-4,188
한미반도체	498	TIGER 200	-5,157	한미약품	4,774	POSCO	-2,250
기업은행	480	KBSTAR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3,383	삼성바이오로직스	3,425	LG유플러스	-2,133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49,932	은행	-2,726	의약품	15,762	미분류	-31,214
기타금융업	121,827	의료정밀	-768	전기전자	13,809	기타금융업	-26,272
서비스업	96,334	종이목재	-232	화학	12,928	보험업	-13,340
삼성전자	240,353	SK하이닉스	-28,911	SK하이닉스	23,206	신한지주	-20,242
NAVER	26,159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27,245	LG화학	21,202	S-Oil	-17,716
신한지주	24,710	S-Oil	-12,695	NAVER	17,733	KODEX 200	-17,650
KODEX 200	23,005	KODEX 코스닥 150	-8,592	LG디스플레이	12,202	KT&G	-16,358
넷마블게임즈	22,795	LG이노텍	-6,716	OCI	9,110	LG이노텍	-12,030
KB금융	22,422	기업은행	-3,715	LG전자	7,811	삼성화재	-11,307
SK이노베이션	21,499	TIGER 코스닥150	-2,713	엔씨소프트	7,384	코웨이	-10,679
현대차	21,288	한국자산신탁	-2,512	한미약품	5,799	삼성SDI	-10,241
LG전자	16,582	CJ	-2,452	삼성바이오로직스	5,280	SK텔레콤	-8,252
LG디스플레이	16,357	호텔신라	-2,293	삼성엔지니어링	5,166	넷마블게임즈	-8,14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31,791	오락,문화	-2,819	계약	30,244	연구,개발	-1,627
도매	7,248	일반전기전자	-635	오락,문화	2,295	도매	-1,424
연구,개발	6,857	사업지원	-299	통신장비	1,965	디지털컨텐츠	-847
셀트리온	17,897	스튜디오드래곤	-3,977	셀트리온	13,179	펼어비스	-1,875
셀트리온헬스케어	6,877	컴투스	-2,634	차바이오텍	5,103	바이로메드	-1,636
신라젠	4,508	에스엠	-1,143	메디포스트	2,987	제넥신	-1,622
휴젤	4,466	시스웍	-876	콜마비앤에이치	2,592	셀트리온헬스케어	-1,112
CJ E&M	3,025	씨티케이코스메틱스	-736	오스코텍	2,434	나스미디어	-87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635	컴퓨터서비스	-337	도매	4,394	반도체	-2,395
계약	570	방송서비스	-156	연구,개발	3,888	기계,장비	-819
연구,개발	503	화학	-29	오락,문화	2,694	통신서비스	-362
웹젠	474	한일네트웍스	-337	셀트리온헬스케어	4,193	HB테크놀로지	-723
테크윙	340	디바이스이앤지	-291	스튜디오드래곤	2,061	SK머티리얼즈	-668
셀트리온헬스케어	293	네오팜	-189	CJ E&M	1,803	원익머트리얼즈	-547
메디포스트	244	CJ E&M	-155	신라젠	1,640	와이지-원	-511
뉴트리바이오텍	233	테라세미콘	-133	제넥신	1,527	하나머티리얼즈	-501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254,998	오락,문화	-517	계약	44,389	방송서비스	-3,327
연구,개발	67,935	환경	-513	비금속	9,137	IT부품	-2,956
도매	41,662	인터넷	-275	연구,개발	6,286	기계,장비	-2,283
셀트리온	167,115	스튜디오드래곤	-7,897	셀트리온	33,565	CMG계약	-3,384
신라젠	51,767	시스웍	-7,564	포스코컴텍	9,014	실리콘웍스	-3,192
셀트리온헬스케어	38,791	테라젠이텍스	-2,106	신라젠	5,604	케이엠더블유	-2,823
CJ E&M	17,024	에스디생명공학	-1,605	오스코텍	3,702	셀트리온헬스케어	-2,151
휴젤	12,633	씨티케이코스메틱스	-1,325	한국전자금융	3,357	로엔	-1,963
차바이오텍	11,317	아나패스	-1,264	네이처셀	3,047	비에이치	-1,920
메디톡스	10,221	오가닉티코스메틱	-1,206	에코프로	2,992	시스웍	-1,818
셀트리온제약	9,175	펼어비스	-1,015	메디톡스	2,599	에스티	-1,774
포스코컴텍	8,970	이엠텍	-883	파라다이스	2,543	크리스탈	-1,647
메디포스트	7,249	덕우전자	-797	텔콘	2,154	GS홈쇼핑	-1,64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46 일	현대엘리베이	13 일	유비쿼스홀딩스	26 일	나이스디앤비	46 일
신영증권	41 일	현대시멘트	13 일	보광산업	23 일	NICE평가정보	45 일
동서	34 일	영흥철강	12 일	유니트론텍	23 일	경동제약	37 일
신세계인터넷내셔널	30 일	종근당	11 일	이크레더블	23 일	한국전자금융	17 일
미창석유	30 일	NICE	11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23 일	금화피에스시	16 일
삼양홀딩스	26 일	무림P&P	11 일	브리지텍	23 일	대한약품	14 일
DB손해보험	21 일	동부건설	10 일	KNN	23 일	컬러레이	12 일
삼호개발	20 일	한국콜마	9 일	코다코	23 일	아이컴포넌트	1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706,968	POSCO	65,852	셀트리온	333,395	셀트리온	103,072
KODEX MSCI Korea TR	305,253	SK하이닉스	60,144	셀트리온헬스케어	107,294	신라젠	36,984
SK하이닉스	120,054	LG화학	43,858	신라젠	102,231	포스코켐텍	16,142
KODEX 200	83,492	호텔신라	34,217	CJ E&M	46,922	에코프로	15,053
KB금융	82,216	기업은행	28,204	휴젤	37,335	CJ E&M	13,304
NAVER	70,786	OCI	26,376	메디투스	32,676	제넥신	12,363
신한지주	46,674	NAVER	25,461	메디포스트	26,345	메디포스트	11,816
넷마블게임즈	46,202	한미약품	22,207	이오테크닉스	21,709	인터플렉스	11,070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249,932	13,809	263,741	제약	254,998	44,389	299,386
서비스업	96,334	2,385	98,719	연구,개발	67,935	6,286	74,221
화학	72,220	12,928	85,147	비금속	10,534	9,137	19,671
삼성전자	240,353	2,547	242,899	셀트리온	167,115	33,565	200,680
NAVER	26,159	17,733	43,893	신라젠	51,767	5,604	57,371
LG화학	10,854	21,202	32,057	포스코켐텍	8,970	9,014	17,984
LG디스플레이	16,357	12,202	28,559	휴젤	12,633	1,137	13,770
LG전자	16,582	7,811	24,393	메디투스	10,221	2,599	12,820
현대차	21,288	439	21,727	에코프로	6,822	2,992	9,813
POSCO	14,163	4,234	18,397	네이처셀	5,573	3,047	8,620
한미약품	11,999	5,799	17,798	에이치엘비	6,565	1,707	8,273
삼성바이오로직스	10,583	5,280	15,863	오스코텍	4,446	3,702	8,147
롯데지주	11,627	3,476	15,103	바이로메드	6,901	1,026	7,92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한솔홀딩스	21 일	한국프랜지	35 일	신진에스엠	26 일	코메론	21 일
ARIRANG S&P500(H)	19 일	풍산	27 일	시너지이노베이션	17 일	아세아텍	19 일
KODEX 200미국채혼합	18 일	아세아제지	24 일	넷게임즈	16 일	이노인스트루먼트	14 일
ARIRANG S&P글로벌인프라	15 일	동양고속	22 일	신영스팩2호	11 일	화성밸브	14 일
화천기계	15 일	세원정공	22 일	비디아이	11 일	휴맥스홀딩스	14 일
TIGER 유로스탁스배당30	14 일	LS	21 일	제닉	11 일	서한	14 일
일동제약	13 일	KPX케미칼	18 일	디케이디앤아이	11 일	에스텍	13 일
TIGER 미국다우존스30	13 일	KODEX 200	14 일	넥스톤	10 일	아바텍	11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00,927	KODEX MSCI Korea TR	-305,249	인터플렉스	-18,761	셀트리온헬스케어	-26,535
KODEX 레버리지	-86,610	삼성전자	-292,559	코오롱생명과학	-12,098	미투온	-24,215
엔씨소프트	-31,741	KODEX 200	-89,164	디바이스이엔지	-11,652	GS홈쇼핑	-6,816
KODEX 코스닥 150	-24,885	아모레퍼시픽	-52,311	티슈진	-10,156	SK머티리얼즈	-6,018
팬오션	-19,117	SK텔레콤	-40,343	시스웍	-7,564	실리콘웍스	-4,992
한국콜마	-17,512	S-Oil	-36,572	스튜디오드래곤	-5,849	오가닉티코스메틱	-4,670
현대글로벌비스	-16,340	KB금융	-35,743	에이스테크	-2,922	안랩	-4,652
코오롱	-15,174	TIGER 200	-33,451	에스티아이	-2,671	에스엠	-4,554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미분류	16,583	-31,214	-14,631	일반전기전자	1,026	-1,437	-411
의료정밀	-768	-663	-1,431	교육	-253	-8	-262
종이목재	-232	-9	-242	오락,문화	-517	431	-86
S-Oil	-12,695	-17,716	-30,411	시스웍	-7,564	-1,818	-9,382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27,245	-967	-28,212	텍스터	-745	-1,008	-1,753
LG이노텍	-6,716	-12,030	-18,746	HB테크놀러지	-304	-762	-1,066
KODEX 코스닥 150	-8,592	-875	-9,467	하나머티리얼즈	-387	-488	-875
TIGER 코스닥150	-2,713	-152	-2,866	덕우전자	-797	-6	-803
한국자산신탁	-2,512	-50	-2,562	지엘팜텍	-447	-289	-736
코리아써킷	-1,825	-595	-2,421	원익머트리얼즈	-680	-5	-686
제이준코스메틱	-1,597	-69	-1,666	유니테스트	-36	-618	-653
한국토지신탁	-662	-564	-1,226	알테오젠	-416	-237	-653
롯데하이마트	-1,033	-96	-1,130	KG ETS	-586	-41	-62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바이오로직스	52	18,093
아모레퍼시픽	40	11,723
LG디스플레이	370	10,997
카카오	69	8,812
NAVER	8	6,860
삼성물산	54	6,589
POSCO	18	6,154
KB금융	83	5,245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신라젠	402	30,295
셀트리온	134	26,646
셀트리온헬스케어	214	19,803
파라다이스	547	11,320
인터플렉스	47	1,943
시노펙스	383	1,859
메디포스트	18	1,804
모두투어	56	1,66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220	8,000,684
SK하이닉스	28,765	2,206,239
KODEX 200	67,517	2,169,318
카카오	10,913	1,413,293
LG디스플레이	40,506	1,215,177
엔씨소프트	2,530	1,104,247
삼성바이오로직스	2,757	956,654
하나금융지주	18,848	948,051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7,058	3,443,991
신라젠	11,418	924,826
셀트리온헬스케어	8,943	857,664
로엔	3,090	348,564
파라다이스	10,204	215,306
바이로메드	1,445	212,384
메디투스	303	142,325
에이치엘비	3,691	127,15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미분류	16,088	기타금융업	-14,728
서비스업	357	전기전자	-10,908
의료정밀	24	증권	-9,393
KODEX 200	20,960	KBSTAR 200	-6,610
카카오	4,917	KB금융	-5,287
TIGER 200	3,833	두산인프라코어	-4,726
ARIRANG 200	3,725	SK하이닉스	-4,624
흥아해운	1,390	우리은행	-4,171
금호타이어	674	한화생명	-3,638
한올바이오파마	469	SK증권	-3,174
쌍방울	465	미래에셋대우	-2,487
삼익약기	277	LG디스플레이	-2,457
쌍용차	209	삼성중공업	-2,405

KOSDAQ			
	순 증		순 감
도매	1,073	제약	-3,906
기계,장비	908	음식료,담배	-3,829
통신서비스	538	IT부품	-2,864
유니슨	1,966	하림	-3,805
셀트리온헬스케어	1,314	셀트리온	-1,676
세종텔레콤	569	차바이오텍	-1,227
비에이치	559	상보	-858
라이브플렉스	512	이엘케이	-850
신라젠	510	홈캐스트	-793
네이처셀	399	포스코캠텍	-723
라운시큐어	370	HB테크놀로지	-709
서한	313	브레인콘텐츠	-699
KD건설	243	주성엔지니어링	-48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19(화)	12/20(수)	12/21(목)	12/22(금)	12/26(화)
외국인	6,256.7	-1,820.8	-424.2	63.9	-307.5	-327.5	131.3	15.8
기관계	-2,084.9	5,170.4	2,470.6	284.6	617.5	311.2	388.2	869.1
(투신)	-3,172.3	455.5	244.0	31.6	-4.7	15.5	52.1	149.6
(연기금)	3,075.4	310.9	93.8	17.3	32.2	46.1	3.7	-5.5
(은행)	-913.6	-125.7	-138.3	-58.2	-28.8	-26.7	-10.1	-14.5
(보험)	-1,929.9	207.2	17.5	-0.7	-37.4	-30.0	50.2	35.3
개인	-9,582.3	-3,918.1	-2,477.7	-357.2	-368.1	-8.4	-849.1	-895.0
기타	5,410.5	568.4	431.3	8.8	58.1	24.6	329.6	10.1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12/18(월)	12/19(화)	12/20(수)	12/21(목)	12/22(금)
KOSPI	1,961.3	2,026.5	2,440.5	2,481.9	2,478.5	2,472.4	2,429.8	2,440.5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5,551.9	25,585.2	25,727.9	24,917.6	25,417.2	25,551.9
(증감액)	6,853.1	58.8	2,797.5	238.2	142.7	-810.3	499.6	134.7
(회전율)	28.8	24.8	42.7	39.4	53.9	45.8	44.7	42.7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4,224.6	-19.4	-222.6	-1,102.2	-137.0	-167.6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4,569.6	4,705.4	4,651.1	4,647.0	4,604.6	4,569.6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5,427.5	5,433.2	5,455.3	5,455.7	5,437.7	5,427.5
미수금	151.0	125.6	146.3	117.1	98.2	118.7	140.1	146.3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2/15(금)	12/18(월)	12/19(화)	12/20(수)	12/21(목)
전체주식형	76,206	432	2,763	251	560	398	81	291
(ex.ETF)		-3,589	400	-58	17	53	32	6
국내주식형	57,466	-1,383	2,488	247	545	387	60	261
(ex.ETF)		-5,462	137	-61	3	41	11	-24
해외주식형	18,740	1,816	275	4	15	11	21	30
(ex.ETF)		1,874	263	3	15	11	21	30
주식혼합형	9,246	1,137	21	-23	-3	1	-21	8
채권혼합형	19,303	-7,220	-440	-11	-24	-14	-80	-103
채권형	97,043	-5,582	-2,483	-21	-88	-221	-159	-92
MMF	107,737	-621	-6,607	190	-419	-59	-2,081	-2,20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19(화)	12/20(수)	12/21(목)	12/22(금)	12/26(화)
한국	5,333	-1,672	-451	59	-285	-303	122	15
대만	4,509	-1,655	-106	-178	-3	-82	41	-84
인도	7,710	-1,043	-430	-199	-226	-204	-	-
인도네시아	-2,964	-317	43	11	32	32	-21	-
태국	-803	-282	78	-84	-8	17	24	-
남아공	-2,713	1,758	441	427	252	188	-	-
필리핀	1,027	-13	36	-4	-5	37	4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6년말	12/19(화)	12/20(수)	12/21(목)	12/22(금)	12/26(화)
회사채 (AA-)	2.14	2.64	2.64	2.64	2.68	2.68
회사채 (BBB-)	8.27	8.90	8.90	8.90	8.94	8.94
국고채 (3년)	1.64	2.10	2.09	2.10	2.13	2.13
국고채 (5년)	1.80	2.29	2.30	2.31	2.34	2.33
국고채 (10년)	2.08	2.45	2.47	2.48	2.50	2.49
미 국채 (10년)	2.56	2.46	2.50	2.48	2.49	-
일 국채 (10년)	0.06	0.04	0.06	0.06	0.04	-
원/달러	1,210.50	1,084.90	1,080.90	1,082.70	1,079.70	1,076.10
원/100엔	1,030.04	961.79	956.55	955.10	952.37	950.29
엔/달러	117.52	112.80	113.00	113.36	113.37	113.24
달러/유로	1.05	1.18	1.18	1.19	1.19	1.19
CRB 지수	193.97	188.90	190.00	190.66	190.82	-
LME 지수	2,663.2	3,256.2	3,293.6	3,313.6	3,343.8	-
BDI	961	1,547	1,476	1,430	1,366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57.46	58.09	58.36	58.47	-
금 (달러/온스)	1,131.35	1,260.7	1,266.1	1,267.3	1,275.4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8	19	20	21	22
유럽> 11월 CPI YoY (1.5%, 1.5%, 1.5%)	美> 11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297, 1230, 1290)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4.9%, n/a, -2.3%) 日> 10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0.3%, 0.3%, -0.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5, 233, 225) 3Q GDP 연간화 QoQ (3.2%, 3.3%, 3.3%) 11월 기존주택매매(백만) (5.81, 5.53, 5.48)	美> 11월 내구재 주문 (1.3%, 2.0%, -0.8%) 11월 개인소득 (0.4%, 0.4%, 0.4%) 11월 선행지수 (0.4%, 0.4%, 1.2%) 유럽> 12월 소비자기대지수 (0.5, 0.2, 0.1)
25	26	27	28	29
	日> 11월 실업률 (2.7%, 2.8%, 2.8%) 11월 유효구인배율 (1.56, 1.56, 1.55) 11월 전국 CPI YoY (0.6%, 0.5%, 0.2%)	韓> 12월 소비자심리지수 (n/a, n/a, 112.3)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4.9%)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 (n/a, 128.0, 129.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40, 245) 11월 도매재고 MoM (n/a, 0.3%, -0.5%) 日> 11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0.5%)	韓> 12월 CPI YoY (n/a, n/a, 1.3%) 유럽> 11월 M3 통화공급 YoY (n/a, 4.9%, 5.0%)
1	2	3	4	5
韓> 12월 수출 YoY (n/a, 8.0%, 9.6%)	韓> 12월 PMI 제조업 (n/a, n/a, 51.2) 中> 12월 PMI 제조업 (n/a, 50.7, 50.8) 유럽> 12월 유로존 PMI 제조업 (n/a, 60.6, 60.6)	美> 12월 ISM 제조업지수 (n/a, 58.0, 58.2)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12월 ADP취업자 변동(천명) (n/a, 190, 190) 日> 12월 일본 PMI 제조업 (n/a, n/a, 54.2)	美> 12월 실업률 (n/a, 4.0%, 4.1%) 11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47.4, -48.7)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